조계종 과거사 성찰은 '현재진행형'

대중공사 25일 '조계종 현대사 성찰' 의제 제시

조계종이 올해 하반기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과거사 정리에 나선다.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공동위원장 도법)는 8월 25일 오전 10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미래불교를 향한 희망'을 주제로 한 제3차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한다.

이번 대중공사에서는 지난해 9월 불교계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94년 개혁 멸빈자 사면과 함께 '대승정법 구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지역현장에서의 불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뢰받는 종단을 위한 제안?' 등이 의제로 상정된다.

사부대중위, 10일 성찰 보고서 공개
조성택 교수 등 대중공사서 발표
94년 개혁 멸빈자 처리 논쟁될 듯

조계종은 지난해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판결 사태 이후, 과거사 문제 해결 및 멸빈자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고민을 이어왔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가 종단 50년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부대중위원회는 2015년 9월 출범해 △과거서 정리 △개혁계승 △94년 멸빈자 복권 등의 분과로 나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사부대중위원회는 대중공사에 앞서 8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발표 예정인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당초 공청회 형식으로 이날 발표하려 했지만 내부조율로 인해 간담회로 변경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부대중위원회는 과거사 성찰에 대해 △성찰의 이유와 대상, △조계종 50년의 성장과 발전, △회고와 과제 등을 총 3장에 걸쳐 다뤘다.

특히 사부대중위는 조계종 5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종단 운영구조를 근대화 체계화하고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뤘지만, 종단의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돼 가치의 측면은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성찰 과제로 △불교가치의 목표, 생명 안락과 행복 구현으로 재설정 △한국불교 정체성, 추상적 선언에서 구체적 상(相) 정립과 제시 △불교교육, 추상적 지식·교리 전달과 습득 중심에서 구체적 삶에서의 실천 중심으로 전환 △종단 구조와 제도, 근대화를 넘어 불교 고유의 문화와 가치의 제도화로 노력 △종헌, 임시체계에서 정상(正常)체계로 전환 △종단 풍토 진정한 연기적 공동체로 회복 △불교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참여 △정치권력과의 관계, 의존성과 무기력을 넘어 자율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또 종지·종풍, 권력구조와 선출방식, 멸빈 제도 등 사법제도에 대해 "현재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헌과 종법에 종도대중의 뜻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안에 대해 조성택 사부대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범계 행위 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법인 스님도 "재가불자 신행을 다루는 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복 아닌 작복으로… 이타적 실천이 중요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① '기복=돈' 한국불교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이 SNS를 통해 제기한 한국불교에 대한 비판 멘트 중 하나가 '기복=$'이다. 정확한 발언은 "열린 그 자리를 기복 종교로 귀복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불교에서 기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기복불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불교 유일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에서는 기복불교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다.

기복불교를 비판하는 학자와 재가, 스님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복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비판은 이렇게 정리된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원하는 행위가 불교적이지 않다. 또한 수행의 종교임을 자부하는 불교가 부처가 되는 수행이 아닌 부처를 믿는 행위인 기복에 몰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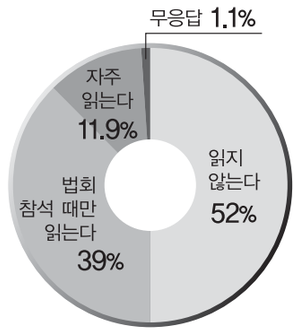
기복불교를 옹호하는 쪽도 적지 않다. 이들도 "초기 불교에도 기복신앙의 흔적이 전해진다(김성철)", "부파불교 시대에도 기복신앙은 있었다(울만 파트리크)"는 등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기복불교는 종교 신앙이 가지는 기본적인 행위임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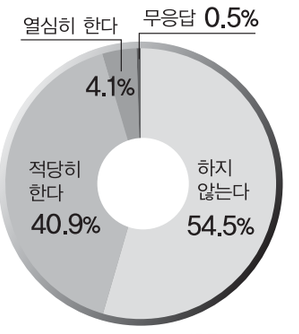
'기복은 불교인가, 아닌가'는 2000년대 後 최고 논쟁 사안

수행 뒷전, 기복에 치중된 세태
불자 신행 만족도 종교 중 最下
떳다방 포교당, 기도를 돈벌이로

기복불교에 대한 학술적 논쟁과 함께 봐야 하는 것은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이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재와 기도 수입에 치중하는 모습들도 적지 않다. 한 대형 사찰에서 49재를 7번 지내도록 유도한 것은 현재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떳다방 포교당'의 경우 재와 기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세태이다.

前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기복신앙적 요소들은 현재 한국사회 민낯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다. 요즘 한국불교가 자본과 정치권력에 짙게 물들어 가는 점은 위기임에 틀림없다"며 "돈과 얽혀 있는 기복신앙은 셀프박해이며 자기기만"이라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 2014〉

반면, 한국불교에서 수행과 지계 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매우 저조하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2014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의 계율·계명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종교 신자 중 개신교(49.5%)였다. 불교의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냐는 질문에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불자는 11.9%에 그쳤다. 동체 대비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 역시 54.5%의 불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불교가 최하위였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불자들은 경전도 읽지 않고, 계율도 지키지 않으며, 자비실천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초하루와 재일에 불공을 올리기 위한 신도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신행하는 불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자신의 글 '기복신앙 문제의 본질 과제'에서 "주변에는 부처님게 복을 비는 것이 불교 신앙의 전부인양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면서 "이들을 기복에서 작복으로, 다시 작복에서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님, 복숭아 받고 시원함 드립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9일 칠석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 2000여 명에게 신중단에 올린 천도복숭아를 나누는 '해피복숭아 나눔의식'을 진행했다. 직접 복숭아를 전달하느라 굵은 땀을 흘리는 주지 지현 스님에게 한 신도가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보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사드배치 반대' 불교계 움직임, 확산일로

성주불교사암연합회 등 반대시위·입장 발표 잇달아

성주 사드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교계로 확산됐다. 불교계 재가단체 및 스님들은 전국 곳곳서 정부에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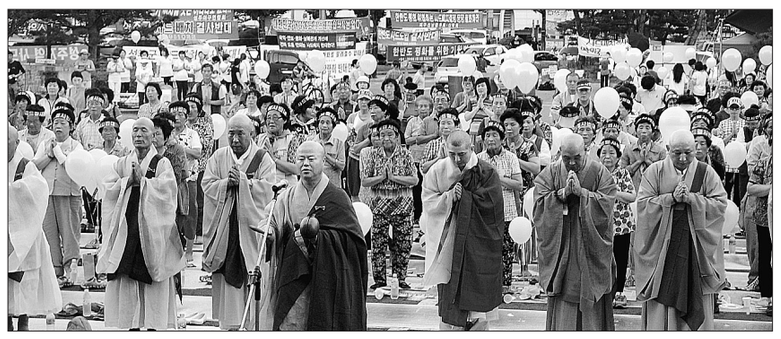
8월 5일 성주군청 앞에선 성주군 불교사암연합회 및 신도회가 주최하고 성주불교지도자회가 주관한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가 봉행됐다. 성주불교지도자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사드배치를 '성주군민 5만의 가슴에 던진 무서운 폭탄'이라 표현하고, 사드배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주불교지도자회 등은 "성주는 옛 문화를 창달해 생활사(生活死)의 문화를 현창하는 바, 매년 전국서 유일한 '성주생명문화축제'를 열어왔다. 하지만 이젠 사드에 의해 '생활사 문화'는 다 죽게 됐다"며 "사드 때문에 성주서 출산하지 않으려 하니 생(生)이 죽고, 학생을 외지로 보내려 하니 활(活)이 죽고, 사드가 가야고분을 짓밟아 사(死)가 죽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평화정신을 본받아 한반도의 평화를 멀게 하는 사드배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신도회 성문숙 씨가 대표로 낭독한 기원문에서 "대통령은 재작년 초 '통일 대박'이라 외치며 국민에 통일이 임박한 듯 희망을 줬다"며 "그러나 지난 7월 12일 성주 주산인 성산을 미군에 내어주고, 고고도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발표했다. 이것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길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는 8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상임대표 이도흠 한양대 교수를 시작으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광수 한양여대 교수, 장성우 정평불 사무총장, 최연 온두라 대표가 차례로 참가한다.



8월 5일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평화기원대법회에서 불자들이 한반도평화정착과 성주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사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평불은 지난 7월 14일에도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대표 법응)은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응 스님은 인사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찬반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드배치에 대해 전 국민 뿐 아니라 국가 간 대립 양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사드배치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야하며, 또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광복 71주년 기념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



• 주제 : 일제하(日帝下)의
만공 대선사 항일 사자후(獅子吼)

덕숭총림 수덕사는 광복 71주년 기념으로 '일제하의 만공대선사 항일 사자후'를 주제로 한 제8회 경허 만공 학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만공선사는 1937년 3월 일제 총독부 어전회의에서 조선불교진흥책에 강력히 저항하여 총독에게 언어폭탄(一喝)을 던져 일제의 조선 식민지 흉계를 단칼에 불식시키고 민족자존을 지켜냈습니다. 만공선사는 일제를 향한 민족적 저항과 항일 정신을 앞장서 이끌었던 경허 대선사의 선풍을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 크게 진작시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경허 만공 연구가 한층 축척되어 한국불교사와 민족정기 함양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후 1시
■ 장 소 | 수덕사 황하정루
■ 주 최 | 덕숭총림 수덕사 / 경허 만공 선양회
■ 후 원 | 충청남도 / 예산군
■ 문 의 | 041)330-7713